

唯物論과 質的 生活 (五)

文君의 反駁에 答함

金永義

生活運動 線上에서 避身하기는 姑捨하고 基督教인이 先驅者인 것을 엇지 하라? 文君은 宗教와 時代精神에 對하여 『宗教는 이데올로기의 一種이다. 그리고 이데올로기 一般은 人間의 生活 過程에서 決定되는 것이며 物質的 生産 活動을 基底로 하는 것이다. 宗教는 何의 이데올로기와 가치 그 自身の 獨立한 歷史를 發展을 有하지 못한다.』고 論하였다. 그리고 또 다시 『先輩』의 말을 引用하여 『一時代의 支配的 思想은 늘 支配階級の 思想에 不外한다.』고 斷言하였다. 果然한가? 宗教 認識이 物質的 生産活動에 基底하였는가? 宗教 認識이 一時的 影像的으로 사라질 것인가? 차라리 宗教 認識은 삶의 『動力的 意志』에서 表現됨이 안인가? 사람은 끈히려야 끈힐 수 업는 이 權威를 어드러고 積極的 意志를 썸에서 宗教的 認識 卽 사람보다 超越한 主動者나 主動者들과 調和하여 삶의 威力을 얻는 것이 아닌가? 싸라서 삶의 鬥가 잇는 썸까지 사람이 사람인 썸까지 삶의 威力을 넓히려는 意志가 잇는 썸까지 宗教는 업서지지 안힐 것이다. 그야 勿論 宗教 認識의 表現은 時代를 싸라 달으다. 人智를 싸라 사람의 文化史를 싸라 宗教哲學 禮式, 敎理는 그表現을 달리 하겟다. 그러나 그 根本인 威力을 넘히려는 意志에서 나는 宗教 認識은 사람의 삶이 잇는 데까지 잇슬 것이다.

싸라서 宗教는 한 時代產物로 生活 過程에서 消滅될 것이 아니라 이는 宗教가 엇더한 一時的 生活과 思想에서 臨時的으로 난 것이 아니라 삶의 根本 썸에 깊히 뿌리를 부치고 잇다. 이 썸이 마르지 안는 썸까지 宗教는 永久性을 띄고 그 宗教 認識의 歷史를 發展하겟다. 宗教史가 獨立한 經驗의 事實이 아니면 宗教生活를 經濟史로서 解釋할 수 잇다는 말인가? 萬若 宗教史가 獨立하지 안헛스면 藝術史, 音樂史, 哲學史 모든 質的 生活의 經驗을 全部 經濟史로 解釋될 것이라는 말인가? 勿論 우리는 物質 生活, 生産制度가 影響한 그것을 否認하지 앓[않]는다. 다만 모든 歷史의 事實을 經濟的 生活의 表現

으로 解釋하려는 것을 反駁함이다.